

## 노인 회상의 의미 분석연구 : 근대 이후 한국소설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은 정\*

### I. 서 론

회상(reminiscence)을 사전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단순히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은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추억담(한글학회 편저, 1992) 등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Webster(1981) 사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행위나 과정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누가 지난 날의 경험을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증폭될 것이다. 고대의 철학자인 Aristotle은 『수사학』(1941)에서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산다. 그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먼 과거와는 거의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그들은 기억하기를 즐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과거를 되씹는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Lidz(1968)는 노인은 과거로 도망침으로써 삶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하여 과거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였다. 이들 고전에서 보듯이 회상은 노인의 전유물 처럼 여겨져왔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별 노인이나 집단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회상의 실무적 유용성을 입증

하고자 회상과 관련된 연구가 노년학과 간호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Fry, 1991; Poon, 1992; Romaniuk, 1981; Sherman, 1991). 간호학에서는 입원한 노인이나 양로원 노인의 심리적 적응의 증진 및 인지 기능의 향상, 노인과 간호사 간의 상호작용의 강화, 노인들끼리의 사회적 활동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연구되어왔다(Burnside, 1992; Ebersole, 1985; Hala, 1975; Osborn,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양로원이나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전시자, 1989; 하양숙, 1990; 정영, 1995). 그러나 그 편수가 소수여서 회상이요법이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간호중재로서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Webster(1993)는 지금까지의 회상의 연구는 연대기적으로 그리고 정제된 개인적 경험이 단순한 양식으로 표상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고 지적하고, 회상은 그 보다는 훨씬 복잡한 개인과 맥락적 변수간의 일생동안의 계속적인 교환과 재고의 과정이라고 하여 회상 개념의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우리가 다양한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접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는 문학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맥락은 인간의 삶의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치며, 따라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은 결국 사회 환경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박태상, 1993). 소설은 말 그대로 사람사는 자살한 이야기들이며, 우리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폭넓게 들려주기 때문에(이남호, 1995), 노인 회상의 의미 및 회상에 따른 노인의 심리를 잘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소설 속에 묘사된 노인 및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시대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노인, 그들이 살아온 삶의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의 회상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한국 문학 속에서 노인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현장에서 회상을 독자적인 노인 간호중재로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문헌 고찰

회상은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연구된 개념으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그 동안 살아온 삶을 재생토록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새로이 조망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실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심리학자 Butler가 노인에게 생의 회고(review of life) 요법을 개발하여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 이래 심리학에서 노인의 회상과 생활만족도,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 우울정도,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앞서 언급한 제 변수들을 측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여왔다. Poon(1992)은 노인의 회상에 따른 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회상의 심리적 적응 기능을 검증하였다. 노인에게 평소에 생을 회상하는지와 연령별 생의 회상 빈도의 차이, 그리고 생의 회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는 바, 회상 빈도는 노인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생의 회

상과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ry(1991)는 Nursing homes에 거주하는 노인 140명에게 9개의 척도와 Havighurst와 Glasser(1972)가 고안한 회상에 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회상 빈도와 즐거움을 예측하는 인자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노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도구를 사용하여 방법상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지만, 회상의 빈도보다는 노인 자신의 개방적 성격과 지적 능력, 그리고 생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상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과거에 부정적인 생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회상이 즐거움을 주거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결론지었다. Hyland와 AcKerman(1988)은 과거에 대한 연령별 기억의 차이와 현재의 행복감 수준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노인일수록 오래된 기억을 하고, 노인이 젊은 이나 중년에 비해 회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행복감 수준과 회상빈도와의 관계는 현재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회상을 자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한 불만족감이 왜 노인으로 하여금 과거를 자주 생각하도록 촉진하는지와 그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회상이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기능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Sherman(1991)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거리의 다소와 현재의 기분상태와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지 간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게 추억거리나 소중하게 간직된 경험이 많을수록 과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현재의 기분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노인의 추억거리는 삶을 재구성하는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Youssef(1990)은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회상의 효과를 측정하였는데, 회상을 실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ppe(1987)는 시설 노인 83명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비회상요법 집단과의 회상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회상의 시기와 내용은 5년 전

이상의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고 매번 모일 때 마다 회상 주제를 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상 집단의 자존감 점수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Lewis(1971)도 노인 병원의 노인 24명에게 개인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자존감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한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Stevens-Ratchford(1992)는 회상활동과 노인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회상 요법을 실시하고 실험군과 비실험군의 우울감과 자존감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영(1994)은 재가 노인에게 집단 회상 요법을 실시하였는데, 생의 회고가 노인이 생활만족을 향상시키거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통합을 하는 데 큰 효과를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자아통합이 비슷한 속성을 지닌 변수로 생각되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Beaton(1991)은 여자 노인 7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회상 유형을 파악하고 회상 유형에 따른 자아발달 점수를 측정하였다. 생에 대한 확신을 하는 유형일수록 자아발달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생을 부정하거나 절망하며 회상하는 노인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Tafe와 Nehrke(1990)는 Nursing home에 거주하는 노인 30명의 회상 빈도와 회상을 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이들과 자아통합과의 관계를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생의 회고의 목적을 가지고 회상할 때 자아통합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합과 관련된 변수는 회상의 빈도보다 회상의 목적이라 보았다. Romaniuk(1981)는 회상과 노년기의 적응간의 의견이 불일치함을 지적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이루어진 회상 중재에 관한 실험적 연구들(Carlson, 1984 ; David, 1990 ; Hale & Hedgepeth, 1983) 역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추

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 회상에 관한 질적 연구로, Burnside(1993)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집단 회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회상의 주제를 분석하여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의 회상요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회상은 노인의 최초의 기억을 자극함으로써 인지적 향상을 돕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Kobach(1993)도 65세에서 95세까지의 남녀 재가 노인 35명에게 회상하는 동안 나타나는 자서전적 기억들에 관한 주제를 분석한 후, 노인 회상요법의 지침이 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사례 중심의 질적 연구는 간호사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노인으로 하여금 회상활동을 촉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회상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형식을 취한다. McKeniz(1991)는 사례 연구를 통해 회상이 노인 병원의 만성질환자의 재활촉진과 동료간의 지지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Nugent(1995)도 회상은 신체적, 정서적 자가간호 능력이 손상된 노인 환자의 대처 전략으로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3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노인을 묘사한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이 주인공이거나 노인문제를 다룬 장편 및 단편을 포함한 한국의 근대소설 중에서 총 150여 편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 문학작품을 탐독하면서, 특히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나 회상에 따른 노인의 심리묘사가 잘 표현된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인의 회상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고 보여지는 장면이나 글에 밑줄을 그었다. 소설 전체의 맥락속에서 드러나는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보여지는 문장이나 장면을 분리하고 그 것들의 주제진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진술들 중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어 이 진술들을 가능한 한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바꾸었다.

분석된 진술 및 주제 진술, 그리고 최종적인 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간호학자 1인과 국문학자

2인의 도움을 얻어 본 연구의 분석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논의

한국문학작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 노인의 회상의 의미가 발견되었다. 본 장에서는 분석된 주제단위로 기술하고 간호학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생의 반성(反省)

한국 소설 속에서 발견된 노인회상의 첫 번째 의미는 생의 반성이다. 이는 살아오는 동안의 과오를 후회하며 이루지 못한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 그리고 원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생에 있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한(悔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정선의 「해질 녘」에서 노인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한과 죄책”이라고 고백한다. 특히 노인이 자식, 배우자 등 가족과의 관계에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이나 원통함, 억울함 등이 많이 발견된다. 오영수의 「輿地에서 온 편지」는 노인이 사는 보람이요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비명에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며 비정한 마음을 토로한다.

...(전략)... 1970년을 나는 생애를 통해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구태어 내 딱 하나 뿐인 아이 늙을 비명에 죽어버렸다는 사실밖으로서는 아니다. ...(중략)... 이제 내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자식을 둔 어버이로서 자식에 대한 의무한 기대 — 그 것은 곧 사는 보람이요, 희망이 아니겠는가. ...(중략)... 그 뿐이야. 억울할 뿐이야. 장례비 몇 푼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자식 늙의 피타 죄장이 튀긴 차바퀴는 여전히 구르고 있고, 나는 그 차를 또 타야 하는 이 비정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략)...

김동리의 「바위」에서 늙은 거렁뱅이 노파는 평생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바위를 부어 안고 쓸쓸히 죽는다. 그 노파에게 있어 바위는 자

기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위가 한없이 그립고 아쉽고 원망스럽고 밍살스럽다. 노인에게 존재의 근원이자 마지막 삶의 희망인 자식의 죽음은 그 자체가 원통함이고 절망으로 묘사된다. 이동하의 「땀」에서 해방 직후 네 살 박이 어린 것과 부모 형제를 두고 홀홀단신으로 남향한 노인은 혈육을 두고 떠나는 것을 원통해하며 생을 마감한다. 김정환의 「어떤 유서」에서 송노인은 평생을 이 세상의 고생과 멸시 속에서 견디다 먼저 간 배우자를 회상한다.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생명과도 같은 전답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죽은 할멈에 대한 그리움과 부끄러움으로 괴로워한다.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 <늙은 뱃사공>에게는 젊은 시절에 아내와 동생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결국 아내를 바다에 투신하게 만든 과오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다. 그래서 뱃사공은 평생을 회한이 담긴 배따라기를 부르며 바다를 가른다. 왜냐하면 바다 속에는 “삭이지 못할 뉘우침”, 곧 회한과 아내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또한 물질이나 사회적 출세 등 세상 이치에 민감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억울해 한다. 이태준의 「복덕방」에서 안초시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멸시와 돈의 궁핍함으로 날로 초라해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출세도 하지 못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안초시>에게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기만 하다.

...(전략)...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긴요성을 날로 심각하게 느끼었다.

“돈만 가지면 좀 좋은 세상인가!”

신신해서 운동삼아 나다녀보면 거리마다 깃느니 고충건물이요, 동네 마다 느느니 그런같은 문하 주택등이다. ...(중략)...

“예순이 넘고래... 젠장할 것”

초시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후략)...

독일의 철학자인 막스 쉐러는 회한과 재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은 과오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시간은 강물의 흐름과는 달라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간 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인간에게는 과거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언제나 자신의 과거와 공존하며 그 일체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그 속의 추악한 부분을 잘라내고 자유와 쇄신과 재생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김윤주, 1982). Munson & Ronald(1983)는 인간은 지나간 것을 재고하는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물에 대한 반성(reflection)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직시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이 회상을 통해서 생을 반성하는 것은 노인이 자기의 삶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자아통합에로의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해석할 수 있다.

## 2) 집착(執着)의 극복(克復)

노인은 인생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회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집착을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궁극적으로 극복한다. 생의 반성과 집착의 극복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채워지지 않은 삶에 대한 회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집착에 매달리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집착을 포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그 나름으로 수용하고 세상에 대하여 관조한다.

이동하의 「땀」에서 6.25 전쟁을 함께 겪은 노인들이 그 시절의 회상을 통하여 가슴에 맺힌 한을 삭이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전략)... —내 나이 서른에 삼팔선을 넘어 왔지요. 아이 둘에 마누라, 그리고 작은 애씨네, 고 예쁜 거는 낳랄 것도 없고, 노부모넌라 그 많던 재산 전당 다 버리고 나오지 않았갔소. 맨주먹으로, 그저 자유 하나만을 바라고 삼팔선을 넘은 거이지. 내 오늘 날이 많큼 허구 살 것을 어찌 바랐겠소? ...(중략)...

“그 늙은 천지두 앓고보니 삼팔따라지 인생이 더구먼 그새.”

장계 얘기 끝에 누군가 북쪽 뜰하였다. 이내 다른 노인이 땅을 받아 뒤엎는 것이다. ...(후략)...

노인들의 단골 메뉴인 6.25 전쟁 당시의 고통, 가족과의 생이별, 하루 아침에 거덜이 난 이야기들은 그때 한 차례씩 명든 인생들이지만, 그간의 엄청난 변화와 더불어 어쨌든 이제는 옛말하며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여유와 적지 않은 감상적인 만족감을 맛보게 하는 듯하다. 노인들에게 있어 6.25 전쟁은 아픔을 함께 했다고 하기에 충분할 만큼 상징적인 사회 정치적 상황이다. 크든 작든 너나 없이 입은 상처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운 동지적 유대감과 명든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의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일의 「미망」은 육십 노인인 며느리와 구십 노구인 할머니와의 갈등을 묘사한 소설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왜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해명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괘시와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바보처럼 살아온 어리석은 삶을 억울해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은 ‘할머니가 생전에 그리도 좋아하던 ‘강갈치’ 한 묶음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끝을 맺는다. 이는 노인이 생전의 인연의 갈등을 풀고 굴레를 떨쳐버리는 것이라 보여진다. 문순태의 「황홀한 귀향」에서 최두삼 노인은 6.25 전쟁 당시 고향인 학골 사람들을 무참히 살생했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괴로워한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과 엮혔던 30년간의 오래된 인간관계의 갈등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극복한다.

...(전략)... 최두삼은 맏기(아들)한테 가슴 속 가장 깊숙한 곳에 무덤 처럼 꽂고 묻어두었던 짧고도 긴 악몽같은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오랑의 쓰디쓴 표정으로 한숨을 몰아쉬었다. ...(중략)... 단소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최두삼 자신이 듣기에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소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흐느끼듯 애끓는 속마음을 참빗으로 훑어내리듯, 참빗의 아픈 마음을 쥐어짜듯 애달게 들리는 단소소리는 갈가자귀 한 마리 날지 않는 텅 빈 가을 하

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이두(1993)에 의하면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로서 한은 '삭임'의 기능을 갖는다. 이 한의 삭임의 기능에 의하여 원한과 한탄 등 한의 독소가 해독되고 미학적·윤리적 가치로 승화·발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을 삭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성숙될 수 있는 것이다.

### 3) 정(情)의 추구(追求)

집착을 포기하고 떨쳐버리고 가슴의 응어리진 한을 삭인 노인은 과거에 맺었던 인간관계에서 순수한 인간적인 정을 회상함으로써 사물과 인간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노인들은 노화와 죽음을 자각하고 어린 시절에 놀던 형제 자매, 친구, 어린 시절의 부모, 배우자와 함께 했던 시절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순수했던 동심으로 돌아간다. 이견숙의 「실향」은 오교장은 어렸을 적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삼고 어머니에게서 들곤 했던 동화를 떠올리며 고향에 두고온 부모와 친척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노인은 어릴 때의 순수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을 회상함으로써 순수한 마음의 발을 동경한다. 이기영의 「고향」에서 노인들은 소싯적의 친구들과 했던 짓 곳은 장난들을 추억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부족한 생활 형편이었지만 지금 처럼 '맨송맨송한 세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기에 有足하였고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은 없었다며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어릴 적, 젊을 때의 순수한 인간적 정을 그리워한다. 윤희와 한경혜(1994)는 노인들은 의례적인 집안행사를 위해 교류하기도 하지만, 형제 간의, 특히 인간적인 애정을 나누기 위한 결속력이 강하다고 한다. 윤진, 조석미(1980)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가깝다-멀다의 의미구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상의 차이가 있겠으나 노인은 자식을 가장 심리적으로 가깝게 인지하지만, 동시에 혈육, 친구를 그리워하고 심리적으로 의지를 한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노인이 자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있어서 자식이나 배우자는 노후 부양과 의지라는 관점에서 심리

적으로 더 가깝게 인지하지만, 형제자매는 의무관계를 떠나 순수한 애정에 의해 인지한다고 본다(성규탁, 1990). 이영희(1992)는 노인들끼리의 관계망 형성의 기능은 서로 지지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인생을 관조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노인들이 어린시절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인간적 정을 추구하는 것은 노인이 그동안 엮었던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어린 아이처럼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심미적인 태도와 사물에 대한 관조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4) 힘의 추구(追求)

생의 반성과 집착의 극복의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노인은 회상을 통해서 지난 날의 힘을 추구한다. 힘이란 신체적 활동력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신감, 지적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김경은, 1995). 따라서 힘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체조건이다. 특히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생존 조건으로서의 힘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힘은 인간의 생존 조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육신의 힘이 사위어감을 느낌에 따라 열기왕성했던 젊은 날의 힘을 찾아 구함으로써 약해진 기력과 기세와 패기를 회복한다. 즉, 젊었을 때의 기운과 현재의 기력 및 건강을 과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적 힘, 젊음으로서의 자신감, 배짱, 지적 능력 등을 의미하는 심리적 힘, 그리고 자식을 거느리고 돈이나 전답 등 물질을 마음먹은 대로 모을 수 있거나 일 및 인간관계에서 이웃에게 인정 받는 등의 사회적 힘이다.

최인호의 「靈感」은 주인공인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할머니의 회상이 손자의 동심어린 눈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그려진다.

...(전략)...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 무덤 옆에서 있는 앙상한 매화나무가 흰 눈꽃을 피우고

서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만큼 앉아 계셨을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는 깡자기 묶을 펴고 일어섰다. 그리고 손을 들고 그 무덤 옆에서 있는 매한나무의 가지를 만지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중략).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앙상하게 죽은 매한나무 가지에 깡자기 꽃이 피기 시작하였다. ... (중략)... 할머니의 노래 소리는 강물이 흘러가듯 이어져 그녀의 깊은 곳에 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이제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었고 마치 갓 피어오르는 꽃송이처럼 환히 생기에 차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꽃 한송이를 따서 들고 눈이 덮인 무덤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그 늙은 노인네의 몸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까 싶게도 할머니는 정정하게 춤을 추시면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덤 주위를 돌고 계셨다. ... (중략)... “가자. 이 할머니를 업어 다구”

“애야 뵈니? 모두 보았니? 오늘 밤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된다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돼” “에”

할머니가 무엇을, 누구를, 그리고 언제를 회상하는지는 이 소설에서 굳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족을 못 써 하루 종일 골방에만 갇혀서 오매불망 남편만을 그리는 구십 노인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의 묘사를 볼 때, 할머니가 죽은 남편과 함께 했던 젊은시절을 기억에 되살렸음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회상 속에서 지난 날의 힘을 추구하는 동안 만큼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몸과 마음은 피어오르는 생기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머니>의 그 회상의 의미가 젊은 시절의 기력과 혈기로 가득한 패기를 추구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 <민익태 노인>은 젊은 시절을 넘쳐나는 ‘끼’를 주체할 수 없어 가정을 돌보기를 소홀히 하고 떠돌아다닌다. 말년에 자식에게 돌아와 얹혀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 대한 죄의식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이다. 그러나 일단 복채만 잡으면 ‘끼’와 더불어 젊은 시절의 혈기왕성했던 기억

과 함께 힘이 솟구치는 자신을 느낀다. 특히 본문 중 “참으로 오랜 만에 북을 끼어보는 것에 없던 힘이 새록새록 솟아나, 어제의 자기를 내팽개치는 기분으로 빠져들어갔다”라고 묘사된 부분은 자기의 한평생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북치는 일이 노인으로 하여금 힘을 솟구치게 하고 신명나게 하는 일임을 느끼게 한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는 장뜰뱅이 허생원이 봉평의 제일 가는 일색인 성서방네 처녀와 맺었던 하룻밤의 인연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 허생원은 젊은 시절에 단 한 번 있었던 괴이한 인연을 틈만 나면 듣는 사람의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며 감상에 젖는다. 봉평 제일 가는 일색과 맺은 하룻밤이 주는 의미는 남자로서의 힘과 자존심을 내세울만한 상징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허생원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낯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걸고 저 달 볼테야”라고 다짐한다. 늘그막에 의지할 자식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이라고는 자신처럼 늙어 빠진 나귀 한 마리뿐인 남이 보기에는 힘없는 노인이지만, 달의 감각적 정취를 음미하며 남아로서의 힘을 발휘했던 젊은 시절의 힘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다. 늙은 뱃사공과 늙은 노파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박상룡의 「남도」에서 늙은 뱃사공은 해가 갈수록 기력이 쇠잔해져가는 자신이 낡아빠진 나룻배만큼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야 단숨에 건넌던 강나루가 한없이 멀게만 느껴져 늙는다는 것이 서럽기만 하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자기도 삼동이 떠들썩할 정도로 힘깨나 쓰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즐거워한다. 젊은 시절의 기력의 추구를 통해 젊음의 패기를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소설에는 시골의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은 노인들의 소일거리 중의 하나로 지나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묘사된다. 김선달은 장난기가 농후하고 혈기 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소실적 이야기들을 과시하듯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젊은 시절의 혈기를 음미하곤 한다. 기력과 패기의 추구가 역동적으로 드러난다. 송영의 「노인부」는 우리 나라의 사회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면서 힘의 추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화장장이 늙은이인 <박침지>는 틈만 나면 만주 벌판을 누

비며 독립 운동을 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기쁨을 누리고 젊은 시절의 큰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박첨지>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 하는 장면에서 남아로서의 장대한 패기를 확인하는 것이 드러난다.

...(전략)... 젊은 늙고 기운은 없어졌으나 그러나 그의 가슴에 큰 뜻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래서 언제든지 조선과 만주를 생각하면서 댁배를 먹고 지내갔던 것이다. 항상 만주의 일이 눈에 훤히 여섯 옛날 서울의 일과 또는 지금 호러스럽게 부자들이 된 옛친구의 보기 싫은 꼴이며 또 자기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만나보지는 못할 지언정 자기의 아들도 자기 같이 어디서 큰 뜻을 위해서 활동이나 하고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제 아버의 자식이나 아주 못난 늙은 아니었겠지!” 하는 스스로 떨는 생각도 나며 따라서 이 생각이 날 때 마다 스스로 기쁨을 마치 않았던 것이다. ...(중략)...

“그대 노인께서는 그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청년은 이어서 말을 하였다. 노인은 그냥 댁배를 빨다가

“에구 그까짓 지난 이야기야 하면 뭐 하나요. 어떻든지 나는 썩은 똥건이요. 그러나 젊은 친구들의 하는 일들은 기뻐하는 늙이지요. 나도 젊어서는 큰 일을 한답시고 만주로 간도로 돌아다니기를 삼십년이나 했대우.”

“네.”

“네, 그러세요.”

“흥, 그까짓거야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유. 어떻든지 나는 썩은 폐물이요. 그저 이 마흔 가슴속에 불같이 치미는 것만 가꾼 있는 늙이아우. ...허!... 자 — 여러 노형네들 느 그야말로 불덩이요. 주먹이 쇠같고 태산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겠군. ...어떻든지 몽감하게 처운 뜻을 꺾이지 마시오. ...허...”

도 또한 웅변은 쏟아져나왔다. ...(후략)...

노인은 자기도 과거에는 남아로서 큰 뜻을 가지고 활동하던 때가 있었으며, 몸은 비록 썩은 존재이지만 마른 가슴 속에 불같이 치미는 것, 곧 화기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젊은 투사들에게 자랑한다. 지난 날의 패기와 기세의 추구이다. 또한 “젊어서 큰 일을 한답시고 만주로 간도로 돌아다녔다”라는 표현은 자기의 집안이나 사육만을 앞세우는 소인배들과는 달리, 대의명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살았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설 전체에 흐르는 노인의 심리상태이기도 하다. 사회·정치적으로 억압과 열등관계에 있었던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로서 활동했던 기개와 패기를 부각시킴으로써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인 힘을 보상한다.

노명석의 「흐르는 뿌리」에서 늙은 주모는 젊은 시절에는 물론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내들의 추앙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이더라도 하듯이, 곱게 꽃단장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늙은 주모는 더 이상 추한 늙은이가 아니고 새로이 태어난 색시로 변모된다. 노인은 “비록 육신은 사위었지만 사상의 마음은 늙으나 젊으나 매한가지야”라고 말하며 변모된 자기의 모습에 흡족해한다. 이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젊은 시절의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볼 수 있다. 임서하의 「노년」은 늙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노부부의 심경이 묘사된다. 노인은 과거에 자신들이 젊었을 때 자식들을 마음 대로 다스리고 거느렸고 자식들 또한 부모를 극진히 떠받들었다며 변해버린 세상을 개탄한다. 이는 부모로서 자식을 거느리는 능력인 기세의 추구로 보인다. 김원일의 「미망」에서 주인공인 <할머니>는 “자식은 키아놓고 보모 다 소용이 없고 대가리 굵어지모 부모 말 안 듣고 어긋나기 심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식을 거느리며 키울 때가 제일 좋은 때였다고 회상한다. 이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대로 거느렸고, 그러한 통제력이 있어서 그 시절이 좋았다고 심리적 만족을 느낌으로써 기력, 패기, 기세를 추구한다. 이와 같이 노인 회상을 묘사한 여러 문학작품에서도 힘의 추구가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력을 기반으로, 기력, 패기, 기세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합



적이고 역동적으로 발견된다. 힘이란 단지 근육 작용, 활동력 등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적 능력, 정서 등의 심리적 힘과 사회적 권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힘을 내포하는 광의의 개념이다(Miller, 1983). 또한 이들 세 가지 힘은 분리되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의미함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상용하는 ‘힘’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구어체이자 문어체적 용어이다. 힘은 순수한 물리학적 의미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신체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패기, 의지력, 인지능력 등 마음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통제력, 권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등 사회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Lambert 등(1981)과 Robert(1986)는 인간이 특히 신체적인 기능상실을 경험할 때, 심리적 의욕이나 동기가 상실되며, 나아가 사회적 행동 및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인간의 신체적 힘의 중요성과 신체적 힘이 심리·사회적 힘에 미치는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힘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 본성상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하여 의지 그 자체를 무한한 목적으로서 요구하는 힘의 확장과 분출로서의 의지이며,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본질로 한다고 볼 수 있다(임두빈, 1982). 노인의 회상의 의미인 힘의 추구는 끊임없이 힘을 확장·분출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나이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힘에의 의지라는 개념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개인의 자기실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경쟁적 노력으로서가 아닌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임두빈, 1982).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이나 간호사는 노인이 지난 날을 이야기할 때 노인 스스로가 가치있는 존재임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이 표현하는 말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존재(存在)의 확인(確認)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 “나(self)”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라틴어의 identification에서 온 identity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으로 자기 정의, 주체성, 자각, 존재증명, 동일성이라는 말로 혼용된다.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와 동일시할 만한 존재를 찾음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화한다는 것이다(박아청, 1990). 그리고 정체성은 자부심이나 보람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노인은 살아오는 동안 맺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 조상, 노인, 자식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은 조상과 자식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이웃관계를 점검하고 이웃에게 도리를 다했다는 데서 삶의 보람을 갖는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지 못하지만, 굶어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던 이들 노인이 살아왔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노인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김원일의 「미망」에서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혹독한 시집살이, 좌익활동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그의 죽음, 그리고 모진 고문과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 홀로 두 자식을 보란듯이 키워냈던 지난 일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 살점이 날라간 손가락을 자식들에게 보이는 것은 부모의 고생과 자식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것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하다. 여기에서 노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히 하여야 할 도리를 다했다는 데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설은 노인이 자식에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삶의 보람이자 정체감의 근원으로 동일시하여 묘사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 오영수의 <은내골 이야기>에서는 김노인이 죽마고우인 박생원의 장례

식에서 오열을 하며 박생원과 함께했던 30여 년의 긴 세월을 회상하는 소설이다. 그리고 김노인은 친구인 박생원에게 ‘자식이 있어 가는 길이 든든하니 여한이 없겠노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노인에게 자식은 생과 사의 보람이며 존재의 근원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인에게 있어 자식은 말년의 복이며, 울타리이고 정체감의 근원이 된다. 윤희길의 「장마」에서 〈외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번듯하게 키워낸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전략)... 그러나 섭섭한 표정도 잠시 뿐, 외할머니는 굶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 되어 다른 이야기들 시작하는 것이었다.

“니가 참말로 우리 권강준이 생길 노릇을 똑똑히 처녀들은 우선 느이 오삼춘이 어떤 사났어 었는가부터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감히 권강준이 우리 오삼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지. 았, 없다마다.” ... (중략)...

평소에 그토록 딸수가 적다가도 일딴 아들이 야기만 시작되면 끝을 모르는 사났어였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면면을 내 마음 가운데 더욱 인상 깊게 심어주려고 외할머니는 최선을 다했다. ... (후략)...

외손자에게 죽은 외아들의 늠름함과 씩씩했던 모습의 면면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노인의 모습에서 노인에게 있어 자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며 자랑거리로 인식되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처럼 자식은 노인의 말년의 힘이자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의지할 자식이 없는 노인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 임서하의 「노년」은 젊어서 큰 자식을 잃고, 얼마 전 말년에 마음을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인 배우자와 사별한 〈허주사〉의 심정이 묘사된다. ‘노인들이 언제나 모여앉아 옛이야기며 손주,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만, 믿을 곳이 없는 허주사에게는 슬픈 일이다. ‘허주사는 하루 종일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고통에 못 견디는 이력 지나간 청춘을 회상하는 듯 좁은 골목을 헤매고 지나간 청춘을 갖고 싶은

생각에 늙는다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졌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노인이 과거에 의지하였던 청춘과 힘 대신에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은 심리적, 물질적 측면 모두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이영희(1992)는 자식과 함께 살든 함께 살지 않든 간에 노인이 자식에게 의존하는 심리적인 의존감이 크다고 전제한다. 이와 같이 노인이 자식에게 갖는 심리적 친밀감이 강함을 감안해 볼 때 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했다고 느낀다는 것은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서병숙(1988)은 노인의 생활만족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구 방법의 차이로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맥에서 해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지만, 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요인은 ‘자손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숙(1987)도 노인의 생활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로 나타나 노인에게 있어 자식은 말년의 힘이자 삶의 정체감의 근원임을 뒷받침해준다고 본다. 노인이 부모, 자식 등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함을 통해 삶의 보람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고찰해봄으로써 해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유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은(恩)과 효(孝)의 상보적 관계로 규정한다. 은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로 낳아준 은혜, 양육의 은혜, 그리고 재산 상속의 은혜이다.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에게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대를 끊이지 않게 하고, 부모생전과 사후에 봉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최길성, 1991). 김재은(1987)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혈연적 연결을 근거로 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생물적 친애행동을,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의존하는 행동과 애착행동을 보이는 심리적 유대가 특히 강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노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힘입어 똑같이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 양육함으로써 부모의 도리를 다함과 동시에, 부모에게는 효를 행함으로

써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함을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여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을 잘 반영한 결과라 보여진다.

노인은 조상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조상과의 관계 속에서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전숙의 「실향」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박씨 노인〉이 자기의 집안이 일 년이면 열두 번 씩 제삿상을 차리고 생일 잔치를 한 달에 두 번씩 치렀을 만큼 번성하고 잘 살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는데, 이는 노인이 조상과 자기를 동일시 함으로써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환의 「수라도」는 위세 당당한 한 집안이 일제 치하와 해방 직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변모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가족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가야부인〉이 자기가 시집을 때의 상황을 자손들에게 틈만 나면 들려주는 일을 낙으로 삼는다. 시집을 때 타고온 커다란 배, 덩그런 사인교, 상객, 몸종, 하인, 교군, 청노새 등에 빛대어 가문의 대단함을 표현하며 그때의 기쁨을 되살리고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는 노인의 태도가 묘사된다. 정한숙의 「한계령」에서 〈오상필 노인〉은 지금은 비록 자신이 약초를 캐며 연명하는 화전민이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인이었던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데 대한 자부심과 삶의 보람이 크다. 그리고 노인은 화전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아버지를 이해 못 하는 자식에게 평생 동안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비밀을 푼 털어놓고 나서 무한한 시원함과 기쁨을 맛본다. 노인에게 있어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산 조상으로, 부모 사망 후에는 영속적으로 묘사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 인식된다(김재은, 1987). 그리고 노인이 사망한 후에도 조상과의 관계는 미분화된 비이원적 관계로서 영원히 공생한다고 본다. 이영희(1992)는 노인이 자식과 마찬가지로 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노인의 정체감의 근원이 되며,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또한 유교적 관점에서 노인이 제사의례 등 조상모시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손들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고 죽은 자신들을 위해 제

사지내게 함으로써 자기의 흔적을 이승에 남기는 간접적인 영생법을 갈구하기 때문으로 본다(금상태, 1986; 유인희, 1991). 이는 노인이 그동안 맺어왔던 부모, 조상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노인은 또한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 즉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이웃의 일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한다. 이청준의 「눈길」은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죽음을 위한 준비로서 자기가 살았던 집을 고치고자 하는 노인의 소망과 그것을 이해 못 하는 자식 세대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노인은 비록 호의호식하고 살지 못했지만 남에게 굶은 소리 한 번 안 들을 만큼 이웃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왔다고 자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후에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다. 이 노인의 표현에서 노인은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워움을 절감하고 살아오면서 유지하여왔던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이웃을 통해 찾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에도 이웃에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킴으로써 자기의 삶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존재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가족관계가 집안에서 이웃, 곧 사회로 확대된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이 비단 가족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외의 외부 사회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최재석, 196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이 이웃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했다는데에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부모-자녀 관계의 횡적 확대 형태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관계의 문화로 규정 짓는다. 관계의 문화란 인간이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있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규정하고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다. 박아청(1990)은 자기(self or ego)란 주체적인 자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것은 부모, 타인,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적인 자기(mutual self)를 의미하는 측면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집단중심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은 집단에 소속

될 때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에 속하기 위하여 집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조명옥, 1993).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문학 속의 노인들이 자손과의 관계, 가족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웃 관계, 조상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삶의 보람을 가짐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관계 중심의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보여지므로 노인 간호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회상개념을 독자적인 간호중재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노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합한 회상요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1930년대 이후부터 현재 까지 출판된 노인 및 노인 문제를 다룬 단편, 중편,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이 살아온 시대적·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함께 그 속에 내재된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 노인의 회상의 의미를 반영한 5가지 주제군으로 대별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生)의 반성(反省)의 주제이다. 노인은 살아오면서 저지른 과오나 실수에 대해 뒤돌아보고 후회, 원통함, 억울함, 아쉬움, 죄책감 등 생에 대한 회한(悔恨)을 한다. 이는 두 번째 주제인 집착(執着)의 극복(克復)과 함께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노인은 태워지지 않은 인생의 부분들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떨쳐버린다. 즉, 물질 집착의 극복,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의 극복, 그리고 혈육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진다. 세 번째 주제는 정(情)의 추구(追求)로, 노인은 회상을 통하여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세상사에 보

다 관조적인 자세를 갖고, 동년배나 형제자매와의 순수한 정을 나눈다. 네 번째 주제는 힘의 추구(追求)이다. 노인은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을 회상함으로써 지난 날의 기력, 패기, 기세를 추구한다. 마지막 주제는 존재(存在)의 확인(確認)이다. 즉 노인은 죽음에 직면함을 절감하면서 살아오면서 맺었던 가족, 조상, 이웃 등 인간관계를 점검함으로써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회상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의 회상요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사회노인은 물론, 양로원, 만성질환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회상요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회상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금장태 (1986). 조상숭배의 유교적 근거와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18, 73-78.
- 김경은 (1995). 노인 무력감의 현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삼성출판사편집 (1981). 한국 현대문학 전집23, 27,50. 서울: 삼성출판사.
- 김원우 엮음 (1987). 어제 울린 총소리. 서울: 조선일보사.
- 구인환 엮음 (1994). 한국대표작 선집: 소설. 서울: 명문당.
- 문학교육연구회 엮음 (1991). 다시 읽어야 할 우리 소설. 서울: 사계절.
- 박상룡 (1988). 열명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교육과학사.
- 서병숙 (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성규탁 (1990). 한국 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10, 163-181.
- 유인희 (1991).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출판사.

- 윤진, 조석미 (1981).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1(1), 75-85.
- 윤희, 한경혜 (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14(1), 117-139.
- 이남호 (1995). 오늘의 한국소설. 서울: 민음사.
- 이상문학상 선고위원회 (1992).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서울: 문학사상사.
- 이영희 (1992). 한국노인의 건강생활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인희 (1984). 사회과학 방법론에 있어서 이해의 문제: Schutz의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청준 편집 (1983). 오늘의 작가총서. 서울: 민음사.
- 임두빈 (1982). F. Nietzsche에 있어 『힘에의 의지』로서의 예술의 본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시자 (1989). 회상의 내용분석 및 간호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 (1994). 회고요법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옥 (1991).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이두 (1993). 한의 구조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길성 (1991).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 최일남 (1996). 1996 이상 문학상 작품집. 서울: 문학사상사.
- 하양숙 (1990). 집단회상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1).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갤럽조사연구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91, '92, '93, '94, 한국 문학작품선.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현암사편집 (1990). 이태준 전집1, 2. 서울: 현암사.
- 현암사편집 (1993). 80년대 대표소설. 서울: 현암사.
- Aristotle (1941). Rhetoric: Book 2. In R. McKean(ed.). The Basic Work of Aristotele. New York: Roman House.
- Beaton, S. R. (1991). Styles of Reminiscence and Ego Development of Older Woman Residing in Long Term Care Setting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2(1), 53-63.
- Burnside, I. (1993). Themes in Reminiscence Groups with Older Wom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5(2), 177-189.
- Carlson, C. M. (1984). Reminiscing: Toward Achieving Ego Integrity in Old Ag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2, 81-89.
- David, D. (1990). Reminiscence, Adaptation and Social Context in Old Ag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0(3), 175-188.
- Fry, R. S.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Reminiscence among Older Adults: Predictors of Frequency and Pleasantness Ratings of Reminiscence Activ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3(4), 311-326.
- Havighurst, R. J. and R. Glasser (1972). An Explorator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27(2), 245-253.
- Hedgepeth, B. E. & Hall, D. (1983). Effect of Positive Reminiscing Intervention on Affect, Expectancy,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53, 867-870.
- Kovach, C. (1993). Content Analysis of Elderly Women. Research in Nursing Health, 14, 287-295.
- Lappe, J. M. (1987). Reminiscing: the Life Review Therapy. Th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3(4), 12-16.
- Lidz, T. (1968). The Persons: his Develop-

ment through the Life style. New York: Basic.

Miller, J. E. (1983). Coping with Chronic Illness Overcoming Powerlessness, Philadelphia, F. A. Davis University.

Munhall P. L. & Oiler, C. J. (1986). Nursing Research : A Qualitative Perspective. Norwalk: Appleton-Century-Crofts.

Munson, A. & Ronald, K. M. (1986). Intervention and Reflection, New York: Wadsworth Pub.

Neugent, E. (1995). Reminiscence as a Nursing Intervention. Psychological Nursing, 33(11), 7-11.

Poon, L. W. (1992). The Georgia Centenarian Stu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Special issue.

Robert, S. L. (1986). Behavioral Concepts and the Critically Ill Patients : Powerlessness, 2nd Ed.,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Romaniuk, M. (1981). Reminiscence and the Second Half of Life. Experimental Aging Research, 7(3), 315-336.

Taft, L. B. & Nehrke, M. F. (1990). Reminiscence, Life Review, and Ego Integrity in Nursing Home Resi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0(3), 189-196.

Stevens-Ratchford, R. G. (1992). The Effect of Life Review Reminiscence Activities on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Older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5), 413-420.

Webster, J. D. (199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Reminiscence Functions Scale. Journal of Gerontological Sciences, 48(5), 256-262.

Youssef, F. A. (1990). The Impact of Group Reminiscence Counseling on a Depres-

sed Elderly Population. Nurse Practitioner, 15(4), 32-38.

- Abstract -

Key concept : Korean elders, Reminiscence

## **Analysis of the Meaning of Reminiscence in Korean Elderly : by analysing Korean Novel Literature**

*Lee, Eun Je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Korean elders' reminiscences by analysing Korean novel literature from 1930s to 1990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meaning of elders' reminiscences are the reflecting on their life, conquering the excessive fondness the regretting, the pursuing of the powers, the pursuing of the love(Jeong) and the conformation of their existence. Elders have tried to examine their life through reflection on their life that they did not live good life as son and daughter for parents and as parents for children and that they have foolishly lived, on dream that they did not come true, on their learning that they did not unsatisfied. But elders conquest the excessive fondness. They have felt their limitations of power in the conflict of human relation, the economic matter and the difficult predicament, and have finally accepted their life as it is by conquering from their tenacity. It is dynamically found that both the reflecting

---

\* Department of Nursing, Seonam University

on their life and conquering of the excessive fondness. And they pursuit the powers. It means the pursuit of the vital powers, the vigorous powers and the competency. Elders have pursued their vitality, vigor and competency through their reminiscences and have wanted to be recognized by others as a powerful being. These have dynamic and compounded aspects. Elders have pursued 'the purely love(Jeong)' through their reminiscence together with their sisters and brothers. And the confirmation of their existence refer to through their own situation of health, condition, children, neighbourhood and doing their duty as a hu-

man. Elders have confirmed the present value of their being through the reflecting the present, past self, other men around themselves, children, neighborhood and the doing their human duty as a good me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offer new view on the elders' reminiscence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em as a process as what they are, escaping from the simple logic that elders' reminiscence have a positive or a negative effects. Also, this study which have examined the natures of Korean elders' reminiscences can cast a new light on elders' nursing proper for Korean culture.